

“보험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 새롭게 발견”

시인인 전주대 이경재 교수 '보험, 인문학에 빠지다' 출간

시·영화·역사 등 보험과 연계해 소개

흔히 보험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서양속담이 있다. 마누라는 빌려줘도 자동차는 안 빌려준다'는 얘기가 그 가운데 하나다. 이 속담이 20년 전 출간된 교양서 제목이 된 적이 있다. 시인인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첫 발견한 교양서 제목이 그 서양속담이었다. 당시에 너무 재미있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여성단체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원래 제목에는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자동차는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

보성 출신 이경재 교수가 최근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책 ‘보험, 인문학에 빠지다’ (바른북스)를 펴냈다.

시, 영화, 역사, 철학 등을 보험과 연계해 소개한 책은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다. 책이 나오자마자 서점에 책이 동남남 인기 끌고 있다.

출간 인터뷰를 위해 통화를 했을 때, 이 교수는 “독자들이 ‘보험 책’이 아니라 ‘인문 교양서’로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실 금융보험학과 교수이기에 책이 딱딱하거나 학술적일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편의 선입견이었다. 그는 ‘서울문학’과 ‘한국문단’을 통해 시인과 시조시인으로 활동하는 문인이었다. 나직한 어조 이면에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섬세한 시선이 느껴졌다.

“보험 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이

“복장이 많다 커널 우장(雨裝)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열이 잘까 하노라”

아울러 우산, 보험, 비와 관련해서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명언도 소개한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금언과 다름없다. “금융기관은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빌려주지만 비가 오려고 하면 우산을 돌려받습니다. 보험회사는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돌려줍니다.”

이처럼 책에는 딱딱한 전공 강의를 흥미롭게 시나, 영화, 철학 등과 연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수상한 고객들’처럼 코미디 영화이지만 아프고, 아프면서도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영화를 소개하는 부분도 나온다. 이밖에 머피의 법칙과 보험을 다룬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을 설명하는 ‘나를 믿어줘, 너를 못 믿겠어’ 등과 같은 재미있으면서 유익한 내용도 있다.

원래 그는 대학시절(전남대 79학번) 손해사정사를 준비했다. 첫째를 낳았고 두 번째 해에 합격해 고시학원 등에서 법률 과목을 강의를 했다. 그러다 보험사에 취직해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봤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꿈이 드리워져 있었다. “자취방 벽에 열서를 써서 붙여 놓고” 10년 계획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 대학 강단에서는 꿈을 이뤘다.

그는 항상 학생들에게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라고 강조한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독서를 많이 하고, 전혀 관련없는 부분을 연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학벌이나 학력보다 창의력있는 인재가 성공하는 시대가 펼쳐질 거라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보험을 잘 들 수 있는 법을 물었더니, 의외로 간단명료한 답이 돌아온다. “무엇보다 상품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험에 가입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보험을 지불하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알아야 하구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중고등학생 대상 여름방학 ‘별난책방’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별난책방’을 운영한다.

오는 8월 3일부터 20일까지 ACC 라이브리리파크에서 진행되는 별난책방은 라이브리리파크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 청소년이 직접 쿼즈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3만여 권의 아시아문화 관련 도서에 단서를 숨겨놓는 등 일종의 방 탈출 형식의 문제를 제작하게 된다.

휴관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진행되며 대략 2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회당 3명의 신청자만 받는다. 우수 결과물은 겨울방학 기간 라이브리리파크를 찾은 시민과 학생에게 보물책 찾기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희망자는 ‘문화포털e’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01-403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강용기 명예교수·국민호 교수 저서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전남대 강용기 명예교수(국제학부)의 저서 ‘생태비평의 이론과 실제’, 국민호 교수(사회학과)의 저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이 2021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전남대출판문화원(이사장 정성택)은 연간 60여 종의 학술도서를 출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37종의 도서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의학술원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학술도서 265종을 올 하반기에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2002년 시작된 우수학술도서 보급사업은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보급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0만여 권의 우수학술도서가 전국의 대학도서관에 보급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극단 사람사이, 신진작가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스토리를 팝니다’ 29~30일 예린소극장

극단 사람사이(대표 송정우)가 신진작가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극단 사람사이가 연극 ‘스토리를 팝니다’를 29~30일 오후 7시30분, 31일 오후 2~5시 예린소극장(광주시 동구 공동)에서 공연한다.

‘스토리를 팝니다’는 광주에서 활동중인 권지에 작가의 작품으로 2012년 경상일보 신춘문에 희곡부문 최종 심사에 올랐다. 이번 공연은 광주 지역 신진작가발굴을 위해 극단 사람사이가 마련한 기획이다.

작품은 무명의 소설가가 이야기를 사고 파는 전당포에서 작품을 구입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작가는 어렵게 돈을 마련해 전당포를 찾아가 이야기 매뉴얼에서 ‘역사’를 구입한다. 이후 작가의 소설은 불타나게 읽히면서 방송, 잡지 등의 인터뷰를 하고 유명해진다. 유명세에 취한 작가는 전편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하고 픽션과 논픽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유명세만의 이야기를 소설로 출판하게 된다.

연출은 송정우가 맡았으며 박규상·이영환·채윤정·박성용



극단 사람사이가 연극 ‘스토리를 팝니다’를 29~30일 예린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등이 출연한다.

한편 극단 사람사이는 지난 2011년 창단 이후 매년 꾸준히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2014년 광주연극제 우수작품

상, 2016년 한국연극협회 베스트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10-2054-428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광주환경연합

‘에쓰투어’ 10월 말까지 진행

광주관광재단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에쓰(예술여행+쓰레기줍기)투어’를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에쓰투어는 광주공원, 광주천변, 양림동 갤러리, 사직공원, 사직전망대 등을 돌아보고 광주공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투어 중에 쓰레기 줍기도 같이 진행된다.

참가자는 투어 시작 전에 장갑, 쓰레기 봉투 등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물품을 전달받는다. 투어 종료 후 SNS나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 인증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제로웨이스트 제품으로 구성된 여행용 키트 또는 주방용 키트를 제공한다.

신청은 광주관광재단 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문의 062-611-365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